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⑨

- 대구 반월당 보현사 보현선원

50년 전통 이어온 깨달음의 공간

탁! 탁! 탁! 무더위가 시작될 7월 18일 오전 9시 보현선원 입승보살의 죽비 소리에 이십여 명의 재가선객이 일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 속에 들어갔다. 뾰족 찌는 더위도 세상의 시끄러움도 이들에겐 전혀 통하지 않는 듯 고요하기만 하다.

#50여년전 보문 선사가 설립 보현선원은 한암, 만공선사와 더불어 당대 3대 선사였던 보문 선사(1906~1966)가 세운 재가선방으로 5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래서 보현선원에는 20~30년을 한결같이 화두참구에 매진해온 재가선객이 많다. 젊은 시절 참선수행을 시작해 수십년 세월이 흘러 80, 90을 훌쩍 넘긴 것이다. 보현선원의 최고령 수행자인 이진보행 보살은 92세의 세수에도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수행력을 보인다. 여기에 후배 보살들을 슬며시 이끄는 모습에서 오랜 삶의 여정 속에 뻗어온 어머니의 지혜가 엿보인다.

25년 전 입승을 맡아 보현선원을 이끌고 있는 문선덕화 보살(86)은 "30년 전 보현선원에 처음 방부를 들일 때도 선배 수행자들이 지금처럼 수행정진을 하고 있었다"며 "선안 세월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행에는 출·재가 따로 없으니 보현선원은 재가불자들의 선방이지만 동안거와 하안거를 철저히 지키고, 산철

에도 2월 초하루부터 3월 보름까지 8월 초하루부터 9월 보름까지 수행정진기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음력 12월 8일 부처님 성도일을 앞둔 1주일은 용맹정진 기간으로 24시간 정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재가자들이 때문에 승가와 달리 갑작스런 한계상황이 닥치기도 하지만 모든 재가선객들은 이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동안거 하안거 결제와 해제 때는 통사에서 조실 진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안거기간이 끝나면 통사로부터 안거증을 받는다. 연초에는 진제 스님을 찾아가 점검의 기회를 갖고, 산철에는 사할순례나 선사를 찾아가기도 한다.

#자유적으로 지켜지는 엄한 수행체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보현선원은 오랜 세월동안 정착된 엄격한 체계 속에 수행정진을 이어간다. 특히 보현선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불가집부터 정갈히 하

20~30여년 화두참구한 노보살들이 중심 승가와 똑같이 동안거·하안거·용맹정진

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보현선원에서는 누구나 정갈하게 법복을 갖춰 입고, 한결같은 한결같은 수행의 연속으로 생각한다. 묵언은 흐트러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챙기는 수행자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 웅변한 일에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웃는 법이 없다.

시간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정진시간, 공양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선방에 들어 올 수 없다. 이렇게 보현선원에서 지켜지고 있는 엄한 규칙들은 일일이 설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새로 방부를 들인 선객들이 선배 수행자들의 여법한 몸가짐을 본받아 자연히 따르게 돼 있다.

즉 보현선원의 하루일과는 엄한 전통 속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보현선원의 수행정진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지고, 한 시간마다 포행을 한다. 오전 11시에 사시 예불을 봉행한 뒤 발우공양을 한다.



30여명의 재가선객들이 대구 보현사 보현선원에서 화두 참구를 하고 있다. 사진=배지선 기자

#사과 맛은 먹어봐야 안다 보현선원에서 수행정진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포행 시간 공부과정에서 느낀 변화들에 대해 물었다.

입만 벌였다면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인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선법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벌였다면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인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선법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한다면 다행히도 경계해야 합니다."

입승보살은 단호한 한마디에 선공부에서 자주 다치는 경계에 대한 주의도 강조했다.

"그래도 실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방향을 바꿔 물었다.

"선 공부의 으뜸이 하심(下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수행에 몰두하다보면 어느새가 매사에 부드러워진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 힘도 얻게 됩니다."

했다"고 밝혔다. 한보산(65) 거사도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행복은 사회생활을 통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재가선객들의 결론은 '사과 맛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것'이었다.

#선배는 이끌고, 후배는 따라 배우고 그렇다면 누구든지 보현선원에 방부를 들일 수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수행정진을 이어온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초심자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입승보살은 "누구든지 진제 스님에게 화두만 타 오면 방부를 들이고 함께 수행정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초심자라도 먼저 수행을 시작한 선배불자들을 따라하다 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를 방부를 들인 젊은 보살들이나 거사들을 보면 반갑고 감사하다"는 문선덕화보살은 이제 40대인 무렵에 보살의 정진하는 모습이 그저 대단하다. 또 얼마 전에 방부를 들이고 참여한 거사들의 수행정진도 눈여겨보고 있다.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은 "보현선원 운영에 있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재가불자들이 수행정진을 잘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잘 알려진 선승을 초빙해 소참(小參)법문을 듣고 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 전기석(57) 거사는 "퇴직을 하고 마음이 복잡해 3주전 보현선원을 찾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7> 처음처럼

한 때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아래 늘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이미지로 강조한 공익광고를 대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화엄경>의 '초발심시변정자(初發心是便正覺)'은 처음마음 같이 늘 한결같은 수만 있다면 깨달음은 이미 때늦은 당상이라는 말이다.

얼마 전 모 대학 총장이 취임하면서 '무월급으로 4년을 재직하겠다'고 주변에 선언한 것은 초심을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자기다짐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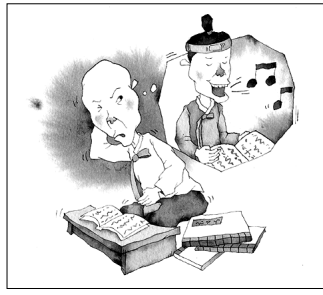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그래도 그게 이단가. 보통 근기는 삼일에 한번씩 작심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근기는 '작심세시간' 일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와의 약속을 스스로 기만하면서 살아가는가.

권도 반드시 외우겠노라고 서원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 20년이 되었는데 나머지 세권을 외우기는커녕 이미 외우고 있던 네 권마저 잊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보나마나 그 이유는 방편(方便)이라는 미명하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거나, 중도(中道)라는 명분으로 원칙을 적당히 포기하면서 연유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남자와 같은 질문이 자기를 향해 칼끝을 겨누어준다면 별로 마음 편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중봉 선사의 답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세속을 벗어나야겠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매양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그 생각에 4권이외의 외울 수 있었다. 이윽고 출가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마음이 방일해져 외워두었던 것까지 모두 잊어



올 초 다짐한 계획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한해 절반을 훌쩍 넘긴 지금 한번 돌아보자

게 두려워서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다짐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하나의 다짐이다.

한 해의 결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보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게 요령만 늘어가기 마련이다. 누구라도 '적당히' 형(形)이 되기 심상이다. 그게 현실이니 '뭐 그까이거대충~'이라는 유행어에 모두가 찬 웃음을 지으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다.

출가인들 예외였는가?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침마다 사발한 맨머리를 만지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라고 후학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출가할 때 그 마음을 정말 얼마나 견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 일이다.

천목중봉(天目中峰 1263~1323) 선사의 회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난 날 세속에 있을 때는 <법화경> 7권 중 4권을 외웠습니다. 출가 후 나머지 3

버리게 된 것이다." 사실 그렇다. 하지만 출가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집을 나오는 것이 목적인 것은 출가가 아니라 기졸이다. 모든 것은 출가 이후의 역할로 평가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행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출가자로서 처음처럼 초심을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20년 세월에 <법화경> 7권이 문제가 아니라 밑으로 모든 선이력을 거꾸로 외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립선원(?)에서 오래 수행한 신영복의 시 '처음처럼'은 현대대 선사(禪師)라 하겠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파트 센터
아파트 마스터 김해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 154-1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t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개천구지(開天救地) ... 벽도구인(闢道救人)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인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量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 벽도구인(闢道救人)”
한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료)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조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인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원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인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